

제16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성황리 거행



문중 퍼레이드를 끝내고 기념 촬영.

제16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뿌리공원 일원에서 244개 성씨 종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행사 첫날에는 전통한복 프리스타일 모델 선발대회가 열렸다. 개막식 및 축하공연에는 개그맨 서경석씨의 사회와 가수 장사의 밴드로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둘째 날에는 문중별 퍼레이드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안동권문에서는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권동원 추밀공파 참의공 이사장, 권충원 참의공 대의원회 의장, 권인순 탄옹공 이사장, 권선상 대전 종친회 수석부회장 등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 태사공 묘소 사진과 안동권씨 조형물 사진 및 권율장군의 피켓을 들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문중퍼레이드 맨 앞에는 권용기 회장의 외손자 어린 꼬마들, 대전 동화초등학교 4학년 류동훈군, 남수찬(7세)군, 오지후(5세)군, 남수지(4세)양 등

이 앞장섰다. 남수지양은 엄마 민현숙씨가 품에 안고 함께 했다. 오지훈군의 엄마 권혜리씨도 지후군의 뒤를 따랐다. 권용기 회장의 큰딸 권선희씨는 작년에는 애들이 안동권씨 우리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많다고 하며 다 우리를 따라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은 맞았다. 작년 퍼레이드 사진이 있는 곳에 가보니 어린이들은 류동훈군과 오지후군이 손을 다정스럽게 잡고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사진만이 전시되고 있었다.

류동훈군은 퍼레이드를 마치고 나서 “도포와 갓을 쓰고 퍼레이드를 하면 가슴이 뿌듯하다. 제가 스타가 된 느낌이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중 퍼레이드가 끝나자 회원들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뿌리공원 행사장에서는 가훈 써주기, 외국인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태권도 시범단 시연, 고려인 역사 이주 공연, 육군군악대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안동권문 부스에서는 권율장군 입체퍼즐 만들기 등에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찾아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 244개 성씨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이다. 축제의 년수가 더해 갈수록 각 성씨들의 참여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퍼포먼스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안동권문에서는 대전종친회에서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참여 대상의 확대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종친회나 각 파종회 등에서 일정을 조율하여 효문화뿌리축제에 참여하면 안동권문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안동권씨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는 좋은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많은 문중과 파종회 그리고 지역종친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숙병 작가 초대 개인전 성황리 개최



권숙병 작가 초대 개인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권숙병 작가는 안동 출신으로 경안고교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미술 교사를 역임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한국수채화 공모전 대상과 입선 2회, 한국수채화 아카데미 사생대회 대상, 경상북도 미술대전 대상과 특선 입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2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특선 3회, 대한민국 수



권숙병 작가

채화 전람회 특선과 입선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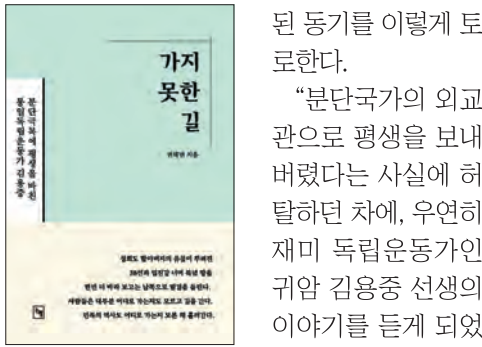
또한 한국수채화 아카데미 사생대회 심사위원장, 한국 수채화 공모전 심사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수채화협회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태면 전 외교관 출판기념회 개최

권태면(權泰勉, 추밀공파 정헌공계 42世) 전 외교관이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인사동 아지트미술관에서 한병길 전 아르헨티나 대사, 김현명 전 대사, 김선홍 전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지 못한 길〉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가지 못한 길〉은 독립운동가 김용중에 대한 이야기이다. 권태면 전 대사는 인사말에서 “은퇴한 지 9년째이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늘 세계지도를 보면서 국가가 나아갈 길을 찾다 김용중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국제정치 외교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김용중 독립운동가는 금산 출신으로 해방 전 10년 해방 후 30년 총 40여 년 동안 외교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이다. 저는 작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지만 이 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출신이 쓰면 좋겠다고 주변에서 강권하는 바람에 책을 쓰게 되었다. 저는 이 분에게서 크게 두 가지를 감명받았다. 첫째는 외교활동이다. 미국, 러시아, 유엔사무총장 등에 게 편지를 보내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 둘째는 언론활동이다. 사업 성공으로 재력이 좋았다. 그래서 연구소를 차려 18년 동안 VOICE OF KOREA 신문을 265회까지 발행했다. 그리고 1975년 9월 6일 사망할 때까지 한반도 종립과 통일, 즉 영세중립국을 위해 노력했다. 유언으로 뼈가루를 38선에 뿌려달라고 했으나 당시에는 유골도 입국하지 못했다. 그러다 24년 후 김대중 정부 때 유언대로 유골의 반은 비무장지대에 뿌려지고 반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고 말했다.



권태면 전 대사는 1979년 제13회 외무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외교관이 된 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스페인, 뉴욕의 유엔대표부, 폴란드 등에서 근무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주재대표를 지냈으며 미국 워싱턴 총영사를 거쳐 코스타리카 대사를 역임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간다. 민족의 역사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흘러간다.”

이 책 『가지 못한 길』의 마지막 구절이다. 김선홍 전 대사는 『가지 못한 길』출판기념회에서 서평을 발표했다. 먼저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고 제의한다.

“소위 외교관으로 35년을 살았다. 그것은 늘 세계지도를 옆에 두고 보면서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는 직업이었다. ... 수십년간 남북의 외교관들은 수많은 국제회의와 전 세계 각국에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외교를 해 왔다. 한 핏줄인 형제와 같은 남한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서로 삿대질만 해대는 모습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서평자가 볼 때, 이런 문제의식과 통일 한국에의 갈망과 모색이 『가지 못한 길』에 짙게 투영되어 있으며, 지은이 권태면은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를 이렇게 토로한다.

“분단국가의 외교관으로 평생을 보내 버렸다는 사실에 허탈하던 차에, 우연히 재미 독립운동가인 귀암 김용중 선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간 선생의 이야기는 교과서나 역사 관련 서적에 거의 소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선생은 광복 직후부터 분단이 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므로 그것을 기필코 막아보려 애를 쓰고, 결국은 전쟁이 터지고 말자 종립화를 통해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국 내에서 평생을 바친 선각자이다.

(...)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기려야 하는가? 나라를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운 장군들이나, 공과의 논란이 많은데도 높은 자리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만 기억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과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

우리의 역사적 상처인 분단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후손인 다음 세대들이 분단 백년이 가기 전에 꼭 통일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책을 마무리했다.”

외교부에서 동료로서 함께 근무하며 저자를 지켜본 김선홍 전 대사는 “이 책을 낸 권태면은 외무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엘리트 외교관이다. 그는 높은 관직에의 욕망보다는 지식인의 고뇌를 품고 살아온 서생 외교관이다. 그동안 그가 썼던 책을 보아서 그렇다. 『밖에서 바라본 한국』은 한국의 사회문화를 내부자와 외부자의 두 시선으로 바라본다. 『우리 역사 속의 외교관』은 신라 이래 우리 역사에서 외교활동을 한 인물들을 탐사한다. 『북한에서 바라본 북한』은 그가 업무상 북한에 살면서 쓴 체험적 관찰기이다. 『구별연습』은 그의 시를 엮은 시집이다. 나는 그의 외교부 동료이자 애독자다. 이번에 나온 『가지 못한 길』은 분단체제 속에서 고뇌하는 한 외교관이 오랜 숙려 끝에 세상에 내놓은 노작(勞作)”이라고 평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추밀공파대종회 회관모금 조성

추밀공파대종회는 회관을 마련키 위해 문중 회장 및 임원과 파친 여러분! 함께 합시다! 69.05% 달성했으면 10억 100%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찬란한 안동권문의 후손입니다. 35만 파친의 추밀공 회관 건립할 수 있습니다. 파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1. 헌성금 목표액 : 10억원 [문중 6억5천만원 개인 1억원 보유현금 3억원]
2. 인센티브 : 헌성비 및 동판에 문중과 헌성자 덕을 영구히 칭송
- 헌 성 비 : 문중 및 개인 모두 성명과 헌성금 기록. 회관동판 : 문중 1천만원 이상 개인 300만원 이상

아래 헌성하여 주신 중증회장 및 종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5.7.11. 안양공 9명 120만원

*25.9.17. 추밀공 사무처장 權稟一 100만원

*2025년 9월 28일 현재 입금액 690,500,000원(69.05% 달성)

昌和公系 玄城君宗中 1010만원, 後北派宗中 1000만원, 双松宗中 500만원, 수원화성 100만원
화상비봉구포중증 500만원

忠靖公系 정간공 중증 1억, 判書公계 驛丞公宗中 300만원, 平厚公宗會강릉문중 1050만원
工參公문중 1000만원, 展力副尉公중증 500만원, 興성중증 200만원, 거처사공중증 500만원
摠制公系길창군중증 500만원, 양정공중증 500만원, 상주문중300만원, 翼平公系백운공 300만원
安襄公系대사헌공중증 5000만원, 翊衛公 500만원, 通德郎公중증 200만원
漣川公系양근공중증 200만원, 齊簡公宗中 1500만원, 敦寧公宗中감찰공계 500만원
양목제공 200만원, 靈靖公宗中 300만원, 寧得公宗中 200만원, 梅軒公宗中 1000만원
安肅公系石洲公중증 1000만원

正獻公系 梧軒宗中 1000만원, 學猿公중증 權東周 100만원, 九吉문중(權寧斗유사) 100만원

後孫個人 權寧鮮고문, 權寧晬명예회장, 權永烈화천그룹회장 各 1000만원, 權彝赫고문, 權泰義고문, 權寧桓고문, 權赫昇명예회장, 權五敦회장, 權五鉉이사, 權純澤(도봉) 各 300만원, 權寧柱부회장, 權炳善창화공회장, 權永漢복야공파고문(부산), 權奇峻이사, 權光澤이사 各 200만원, 權純鳳이사, 權公範이사, 權寧甲이사, 權萬朝이사 權赫燦부회장, 權五廷부회장, 權五周부회장, 權泰平부회장, 權点夏부회장, 權松雄부회장 權得基부회장, 權寧佑중무위원, 權純福중무위원, 권장섭중무위원, 권혁만이사, 권도영부회장, 권태현부회장, 權五準 各 100만원, 權五鹿부회장, 權炳吉(시흥), 權五翎중원, 權寧學중무위원, 권순택(도봉구), 권병구이사, 권영례부녀회고문(부산), 권상찬부회장 各 50만원, 權東遠, 權學周, 權赫柱, 權純求, 權寧寬, 權泰永, 權赫遠, 權瑜植, 權五正(여천) 各 30만원, 權晚集이사, 權純晚중무위원, 權晁晬명예회장, 權純浩, 權五相 各 20만원, 권영갑(관악), 권승택(노원), 권중원(중랑), 권희원(시흥), 권순일(고양), 권오곤(진주), 權寧植(용인), 권덕림중무(부산), 권진성부회장(부산), 권상호(부산), 權赫三 중무위원, 權点夏부회장 各 10만원

헌성금 입금계좌 : 농협 317-0009-2118-41 안동권씨추밀공대종회 연락처 : 사무처장 권경일 010-3039-7282 추진위원장 권경석 010-5201-5495

추밀공파대종회 회관조성추진위원장 권 경 석